

# 공익적 지리정보 기반 봉사 학습이 사회적 공감 함양에 미치는 영향: 노인 복지맵 봉사 프로젝트를 사례로

손민석\*

## The Effects of Public-Interest Geographic Information-Based Service-Learning on Fostering Social Empathy: A Case Study of a Welfare Map Service Project for Older Adults

Minsuk Son\*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공익적 지리정보(노인 복지맵) 제작·활용에 기반한 지리교육적 봉사 학습 프로젝트를 설계·운영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학생들의 사회적 공감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봉사 프로젝트는 노인의 삶을 개인 차원과 사회 구조적 차원의 교차점에서 이해·해석하고, 연구자와 학생들이 협업적으로 노인 복지맵을 생산·공유하는 시민적 실천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검사와 질적 자료 분석을 결합한 혼합 연구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사회적 공감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특히 사회적 영역이 개인적 영역보다 더 높은 점수 향상을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노인의 어려움을 복지 정보 접근성과 전달 체계의 한계 등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공익적 지리정보를 생산·공유하는 실천을 통해 시민적 책임 의식과 행동으로 공감을 확장하였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익적 지리정보 기반 봉사 학습이 사회적 공감 교육의 지리교육적 실천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사회적 공감, 공익적 지리정보, 봉사 학습, 지리정보기술, 지리교육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geography service-learning project based on the production and use of public-interest geographic information (a welfare map for older adults) on students' social empathy. The project was designed as a civic-oriented learning activity in which students examined older adults' lives at the intersection of individual circumstances and broader social and structural conditions while collaboratively producing and sharing a welfare map for older adults. The study adopted a mixed-methods design combining pre- and post-tests with qualitative data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social empathy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increase was greater in the social domain than in the personal domain, suggesting that students came to interpret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older adults not only as individual problems but also as issues related to structural conditions such as limited accessibility to welfare information and weaknesses in welfare information delivery systems. Furthermore, the experience of producing and disseminating public-interest geographic information encouraged students to extend their empathy toward civic responsibility and ac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ervice-learning grounded in public-interest geographic information can provide a meaningful pedagogical approach for fostering social empathy within geography education.

**Key Words :** Social empathy, Public-interest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learning, Geospatial technology, Geography education

\*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 특별연구원(Special Researcher, Institute for Unified Korea, Pusan National University, syc1616@jangyu-h.gne.go.kr)

## I. 서론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분열의 심화·확대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는 갈등과 차별, 혐오가 사회 전반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Stiglitz, 2012; 이종임 등, 2021). 자신과 다른 이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비정상적 존재로 낙인찍고, 그들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며 혐오의 감정을 표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서영진, 2021). 성별, 세대, 계층, 장애 여부와 같은 차이는 더 이상 개인의 특성이 아닌 배제와 낙인의 근거로 작용하고, 사회적 약자가 겪는 사회문제를 개인적 요인의 결과로 환원하는 담론 또한 강화되고 있다(김안나, 2007; Sandel, 2020).

이러한 상황의 타개를 위한 대안으로 공감(empathy)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Nussbaum(2010)은 타인의 사고와 감정을 상상하고 인식하는 공감이 민주주의의 성립과 유지에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이자 비판적 사고와 시민적 판단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Krznic(2014)은 빈곤, 인권 탄압, 차별과 불평등, 정치적·민족적 폭력 등에 대한 대처와 사회적 분열의 완화를 위해 공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공감이 개인 간의 관계에 국한된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지형 전반을 변혁할 수 있는 집단적 역량이며, 나아가 기존의 인식에 은폐되어 있던 문제와 관점을 드러내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Krznic, 2014).

그러나, 공감이 사회적·정치적 문제에 대한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되지만, 기존 논의들은 주로 개인의 정서적 이해·태도 변화 차원에 초점을 두어 타인의 고난과 역경을 형성하는 사회 구조와 제도적 조건까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Segal(2011)은 기존의 공감을 확장한 사회적 공감(social empathy) 개념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공감은 타자의 삶에 대한 공감뿐만 아니라, 그 삶을 형성하는 사회 구조적 조건과 불평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공동의 책임과 실천의 문제로 전환하도록 이끄는 기록제가 될 수 있다(Segal, 2011; 2018). 즉 사회적 공감은 타자가 직면한 사회 구조적 모순과 차별에 대한 거시적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지향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역량으로 기능할 수 있다(Segal and Wagaman, 2017; 한동균, 2018).

사회적 공감의 중요성이 부각함에 따라 최근 사회과 교

육 분야에서는 교육과정 및 수업의 맥락에서 공감과 사회적 공감의 의미를 정교화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델을 제시하는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한동균, 2018; Segal, 2018; 박가나, 2020; 한동균, 2020; 한성범, 2023). 그럼에도 사회적 공감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부족하며, 특히 사회적 공감의 형성 및 사회적 실천을 연계하는 지리교육적 접근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 공감 교육의 지리교육적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익적 지리정보<sup>1)</sup> 기반 봉사 학습 프로젝트를 설계·실행하고, 참여 학생들의 사회적 공감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리정보기술의 효과적 활용에 기반한 지리교육적 봉사 학습을 사회적 공감의 실천적 교육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 등을 경험하는 노인(강은나 등, 2023)을 사회적 공감의 대상 및 봉사 수혜자로 설정한 ‘노인 복지 맵 봉사 프로젝트’를 설계·운영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노인의 복지 제도 정보 인지 및 수용 과정에서의 어려움(강유진·강효진, 2005; 김신영, 2006)을 완화하고, 복지정보의 효과적 전달에 공헌할 수 있는 복지맵을 생산·활용하였다는 측면에서 특징적이다. 본 연구는 공익적 지리정보의 생산·활용을 기반으로 한 봉사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 공감을 책임 있는 시민적 실천으로 확장하는 사회적 공감의 지리교육적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공감과 사회적 공감의 의미 및 교육적 필요성

‘einführung(안으로 들어가서 느낀다)’, ‘empathia(안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열정)’에서 유래한 공감<sup>2)</sup>은 미학, 예술, 심리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주목하는 개념이다(Beer, 2003; 박성희, 2004). 인본주의 심리학자 Rogers(1980)는 공감을 어떠한 판단이나 편견을 배제한 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며 타인의 주관적 세계를 그 사람의 관점(frame of reference)에서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도덕 심리학자인 Hoffman(1981)은 단순한 감정입 수준을 넘어 타인의 고통이나 곤경에 대한 이해까

지 포함하여 공감을 설명하였다. 비록 학자마다 강조점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공감은 타인의 상황과 관점을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라는 점에 수렴한다.

공감은 일상적으로 정서적 영역만을 대변하는 개념 같지만, 실제로는 정서·인지·의사소통·행동적 요소를 포괄하는 복합적 능력이다(박성희, 2004; 허순향·남승규, 2019; Guidi and Traversa, 2021). 우선 공감의 인지적 요소는 타인의 감정·생각·의도를 이해하고 그 정서 상태를 변별하는 능력을 의미하며(박성희, 2004), 타인의 관점과 역할을 취해 그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는 인지적 기제를 포함한다(한동균, 2020). 정서적 요소는 타인의 상황에 대한 대리적인 정서적 경험으로, 공감적 관심과 타인의 정서 이해에 토대를 둔다(신경일, 1994; 허순향·남승규, 2019). 의사소통적 요소는 타자와의 정서적 공유를 위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과 정서를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며(Rogers, 1980; Barrett-Lennard, 1981), 행동적 요소는 인지한 감정에 실제로 반응하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 형성을 시도하는 실천적 특성을 뜻한다(허순향·남승규, 2019; Guidi and Traversa, 2021). 결국, 공감은 타인의 정서와 관점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며, 이를 의사소통과 행동으로 표현하여 상호 간의 정서적 이해와 관계를 형성하는 통합적 능력이다.

개인적 수준의 공감은 타인의 감정과 사고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Davis, 1983; Eisenberg and Miller, 1987), 타인을 위한 도덕적 판단과 실천의 기초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Hoffman, 1981). 개인적 공감이 타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타인이 처한 삶의 조건을 형성한 사회구조적 특성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로는 타인의 고통과 곤경 등이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닌, 권력의 불균형, 차별, 기회의 불평등, 제도적 결함과 같은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Segal, 2018; 한동균, 2020). 예컨대, 새벽녘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는 노인을 온전히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노인의 피로와 외로움에 대한 개인적 수준의 공감에 더해, 그러한 노동을 야기한 기초연금의 부족, 노인 고용의 불안정성 등 사회 구조적 요인에 대한 통찰이 함께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는 사회적 공감은 “타자의 삶의 상황을 인식하거나 경험함으로써 그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격차를 통찰하는 능력”

(Segal, 2011:266-267; 한동균, 2024:142)으로 정의되며, 개인적 공감, 맥락적 이해, 사회적 책임이라는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Segal, 2011). 즉 사회적 공감은 개인적 공감에서 시작하여, 이를 사회 구조와 제도, 맥락에 대한 이해로 확장하고, 나아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헌신, 책임으로 연결하는 개념이다(Segal, 2011; 2018). 사회적 공감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복지 정책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인다는 Yoo and Jang(2019)의 연구 결과는, 사회적 공감이 타자의 고난과 역경에 대한 개인 수준의 반응을 넘어,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인식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태도와 사회적 책임 의식의 형성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리 교과를 포함한 사회과는 사회적 공감 교육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최용규·이서영, 2015; 한동균, 2018; 2020). 기본적으로 사회과는 사회 정의, 인권, 공동체 의식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함양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의 양성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사회과가 지향하는 민주 시민성은 단순한 사회 규범의 내면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 등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성찰을 포함한다(Freire, 1973; Morgan, 2000). 이러한 비판적 교육의 관점에서 사회과 교육은 학생들이 사회·정치·경제적 모순을 인식하고, 현실의 억압 구조에 비판적으로 대응하며, 사회적 약자가 직면하는 사회 구조적 장벽을 이해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Slater, 1992; Diemer and Blustein, 2006). 나아가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이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가해지는 차별과 불평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의 민주화를 이끄는 사회적 실천을 모색하고 시민적 효능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Watts et al., 2011; 손민석·이진희, 2024).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사회적 공감 교육은 학생들이 사회 구조와 문제, 제도, 억압, 편견을 이해하고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에 따라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심층적으로 공감하도록 이끌며(Hylton, 2018), 공동체가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 및 정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Segal, 2011)에서 사회과 교육의 목표에 부합한다. 요컨대, 사회적 공감은 타자에 대한 정서적 이해와 그들을 둘러싼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심화·확장하여, 사회과의 근본적 목표인 비판적 사고와 정의 지향적 시민성의 함양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공감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공감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를 이해하고 책임 있는 실천으로 연계할 구체적인 교육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2. 사회적 공감 교육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봉사 학습과 지리교육적 실천

본 연구는 사회적 공감 교육을 위한 실행 전략으로 봉사 학습(service learning)에 주목한다. 봉사 학습은 지역 사회의 실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심과 경험, 열정을 실제 사회의 맥락에 적용하여 학습 심화와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체험 중심의 학습 활동이다(Deeley, 2010; Jacoby, 2015). 봉사 학습은 단순한 봉사 활동(service)과 달리 명확한 학습 목표가 존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 과정과 구조화된 성찰 활동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다(Kraft, 1996; 전보애, 2010; Jacoby, 2015).

봉사 학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Dewey의 경험주의 학습론에 근거를 두어 구조화된 학습 경험의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를 촉진한다(Deeley, 2010; Jacoby, 2015).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서 직면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관점·가치·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성찰할 수 있다(Dewey, 1990). 둘째, 실제적 경험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요구나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학습 내용 및 관련 지식을 실제에 적용하며, 이를 통해 실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을 습득하고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확장할 수 있다(Farber, 2017; Aramburuzabala and Cerrillo, 2023). 셋째, 봉사자와 수혜자 간의 호혜성을 지닌다. 봉사 학습은 봉사 활동과 교과 내용을 통합하여 학생들은 학문적 지식과 기술을 심화하고, 수혜자(또는 지역사회)는 일정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상호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호혜적 접근법이다(전보애, 2010; Jacoby, 2015). 마지막, 참여 현장 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전략과 연계할 수 있다(김민성·이창호, 2015). 이는 연구 참여자가 연구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구 전략으로,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능동적인 변화 주체로 거듭나는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Schensul and Berg, 2004; Kinson *et al.*, 2007).

이러한 봉사 학습은 사회적 공감의 학습 요소(Segal, 2011; 2018; 한동균, 2020; 한성범, 2023)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예컨대 봉사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봉사 수혜자와의 실제 만남과 접촉을 갖는데, 이는 새로운 장소에서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 사상, 문화 등에 노출되는 사회적 공감의 ‘노출(exposure)’을 충족한다. 또 봉사 수혜자와 자신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격차·차이를 유발한 다양한 원인(예: 역사, 지리, 문화, 혈통 등)과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설명(explanation)’ 요소를 다룰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수혜자의 처지에 자기를 위치시키는 ‘경험(experience)’과 이를 토대로 그들이 겪는 불평등, 차별과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감적 실천(empathy practice)’도 가능하다. 따라서 봉사 학습은 수혜자에 대한 개인적 공감과 사회 구조적 이해, 책임 있는 행동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의 형성과 심화를 지원하는 교육적 전략으로 적합하다.

최근, 지리교육 분야는 지역사회 문제나 요구에 대한 지리적 접근과 봉사 활동을 통합한 지리교육적 봉사 학습에 관심을 두고 있다. Grabbatin and Fickey(2012)는 이러한 접근이 학생들에게 실제 지역 문제를 공간적으로 탐색하고, 그 해결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리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실천적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지리적 시각화와 이를 지원하는 지리정보 기술<sup>3)</sup>의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의 공간적 특성을 탐색·분석·합성·표현하거나(MacEachren and Kraak, 2001), 지역민들의 공간 자원 접근성, 안전, 이동 편의 등과 같은 실제적 요구 및 불평등을 반영한 지리정보를 생산·공유할 수 있다(손민석, 2025).

구체적으로, Ferrer-Julíá *et al.*(2025)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GIS를 활용하여 스페인 León의 하천 주변 약 1km 구간에 존재하는 쓰레기통 및 폐기물 수거함 위치를 조사·분석하고, 도시의 폐기물 관리 개선을 위한 신규 배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Kellogg Community College에서는 수목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학생들이 GIS를 활용하여 캠퍼스 내 600여 그루의 수목을 측정·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간 갱신되는 수목 지도를 구축하는 봉사 학습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Wessell, 2024). 그리고, 김민성·이창호(2015)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관악산 등산에 대한 공익적 지리정보 제공을 위해 GPS, 구글맵스와 구글어스 등의 지리정보기술

을 이용하여 주요 지형경관, 버스정류장 정보, 경로 난이도 등을 포함한 관악산 등산로를 개발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지리정보의 수집·분석·시각화를 활용한 지리교육적 봉사 학습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공헌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지리정보기술 활용 역량, 공동체 의식, 사회참여 의식을 증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민성·이창호, 2015; Wessell, 2024; Ferrer-Juliá *et al.*, 2025). 그러나 공간·환경 정보 제공과 사회참여 경험의 교육적 의의에 중점을 두어, 사회적 약자의 실제적 요구를 반영한 지리정보 및 지도를 생산하고 이에 기반한 사회적 실천이 학생들의 사회적 공감 함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동시에, 기존의 사회적 공감 교육은 공감의 심리적·도덕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시뮬레이션, 역할극, 예술 작품 활용 등을 주요 교육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으나(한동균, 2020), 지역사회 또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는 실천적 경험을 강조하는 교육 전략에 관한 논의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생들이 연구자와 협업적으로 Web 2.0 지리정보기술 기반의 노인 복지 지도를 제작·활용하는 봉사 학습 과정을 설계하고, 이러한 학습 경험이 사회적 공감 함양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학생들이 노인의 처지를 공감하고, 노인 복지 정보 제공의 방식과 접근성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며, 복지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실천적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을 함양하는 양상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리교육적 맥락에서 사회적 공감 교육의 실천적 모델을 제시하고, 나아가 기존의 지리정보기술 기반 봉사 학습과 사회적 공감 교육을 확장·심화할 수 있는 의의를 지닌다.

### III. 연구 설계

####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노인 복지맵 봉사 프로젝트가 학생들의 사회적 공감 함양에 미치는 교육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표를 두고, 2025년 8월 4일~2026년 2월 6일의 기간 동안 진행하였다.

봉사 프로젝트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분석은 정

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를 모두 활용하는 혼합 연구 방법(mixed methods research)으로 수행하였다. 이는 정량적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정성적 자료를 활용해 심층적·맥락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Creswell and Plano Clark, 2018). 더불어 정량적 분석의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험집단뿐만 아니라 통제집단을 설정한 사전·사후검사 설계를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회적 공감 수준을 측정하는 사전검사를 시행하였다. 둘째, 실험집단을 대상으로는 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지만,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실험 처치를 가하지 않았다. 셋째, 두 집단에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고, 질적 분석을 위해 실험집단 학생들의 반성적 보고서와 심층 면담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김해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 70명이다. 자율적 의사에 따라 32명(남 10명, 여 22명)을 봉사 학습에 참여하는 실험집단으로, 나머지 38명(남 15명, 여 23명)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교학점제에 따라 문·이과 계열의 선택 교과를 다양하게 수강하고 있으며, 지리 교과 수강자는 실험집단 5명, 통제집단 7명이다. 더불어 실험집단에서 노인 대상의 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은 2명에 불과하였다.

#### 3. 자료 수집 도구 및 분석 방법

봉사 프로젝트 참여가 학생들의 사회적 공감 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등학생용 사회적 공감 척도(한동균, 2024:159-160)를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부록 참고). 이는 리커트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의 형태로, 개인적 영역 17개 문항과 사회적 영역 23개 문항, 총 40개 문항<sup>4)</sup>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측정 도구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0.70 이상으로 높은 신뢰 수준을 보였다(De Vaus, 2002).<sup>5)</sup>

정량적 자료의 분석은 SPSS 27.0을 활용하였고, 실험 처치 전 두 집단의 동질성 확인을 위해 사전검사 결과에 대한 독립표본 *t*-test를 시행하였다. 이후 봉사 프로젝트

의 교육적 효과 검증을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된 ANCOVA(공분산 분석)를 수행하여 집단 간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전검사의 하위 영역 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된 MANCOVA(다변량 공분산 분석), 그리고 후속 일변량 ANCOVA를 통해 집단 간 사회적 공감의 하위 영역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더욱이 효과 크기( $\eta_p^2$ )를 산출하여 실제적 유의성도 함께 분석하였다.

한편, 프로젝트 참여가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험집단의 학생들에게 활동 종료 후 프로젝트 과정에서 경험한 공감에 대한 관점의 변화, 사회적 책임 등을 서술하는 반성적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반성적 보고서의 내용 중 구체적, 추가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정성적 자료의 분석은 Krippendorff(2004)의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토대로 수행하였다. 분석 과정은 두 명의 연구자가 반성적 보고서와 면담 내용을 반복적으로 정독한 후, 의미 단위를 추출하고 초기 코딩을 시행하였으며, 유사한 의미를 지닌 코드의 범주화를 통해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분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두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한 코딩 결과를 비교·검토하였으며, 협의를 통해 해석의 차이를 조정하고 최종적인 주제와 그 근거가 되는 발췌 내용을 확정하였다.

#### 4. 노인 복지맵 봉사 프로젝트의 설계 및 적용

우선, 학생들의 사회적 공감 능력 함양을 추구하는 노인 복지맵 봉사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를 ‘봉사 학습은 노인의 삶을 개인 차원과 사회 구조적 맥락의 교차점에서 이해·해석하고, 공익적 지리정보를 생산·공유하는 실천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 공감 능력 함양을 지향한다.’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현장 적용성 증진에 주안점을 둔 NYLC의 봉사 학습 모델(1) 조사, (2) 계획·준비, (3) 행동, (4) 성찰, (5) 성과 공유(National Youth Leadership Council, 2025년 8월 5일자)-을 토대로, 사회적 공감의 학습 요소인 노출, 설명, 경험(Segal, 2011; 2018), 공감적 실천(한동균, 2020), 공감적 성찰(한성범, 2023)을 반영하여 표 1과 같이 설계하였다.

봉사 학습에 앞서 연구자는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취지

를 제시하고, 학생들과 협업적으로 목표, 과정, 일정을 설정하였다(Schensul and Berg, 2004; Kindon et al., 2007). 또한 지리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대중이 제작한 지도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봉사 학습에 필요한 지리적 기초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이끌었다(Deeley, 2010; Jacoby, 2015).

조사 단계는 노인과 직접 접촉하여 그들의 삶을 공감하도록 이끌며(Segal, 2011; 2018), 요구(필요) 사항을 조사하는 초기 과정이다(Jacoby, 2015). 학생들은 경로당, 공원, 사회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많은 노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노인들이 신체적 쇠약으로 자존감이 저하되고 병원 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경제 활동의 제약과 자녀의 부양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복지 제도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복지 제도 정보는 사회 복지사의 안내나 지인들과의 경험담 공유를 통해 얻는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이러한 만남과 대화를 통해 학생들은 노인의 실제 생활 맥락과 상황(문화, 가치, 태도 등)에 노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노인의 감정과 처지에 대한 개인적 수준의 공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Segal, 2011; Adelman et al., 2016; 한동균, 2020).

더불어 노인 56명과 사회 복지사 3명 대상의 요구 조사 결과, 노인 대부분이 저하된 시력에 따라 작은 글자 기반의 복지 제도 안내서<sup>9)</sup>는 무용한 수준이라 질타하였다. 또한 노인들은 인터넷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는데, 시청과 행정복지센터는 각종 제도를 주로 인터넷으로 안내하여 사회 복지사나 자녀의 도움 없이는 관련 정보의 접근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 및 사회 복지사는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맵 제작을 지지하였고, 다양한 병원의 위치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 지도에는 큰 글씨, 간결·명료한 설명, 선명한 색상이 반영되어야 함도 제시하였다.

조사 단계 중 교실 조사는 노인들이 처한 근경과 어려움을 발생시킨 사회 구조와 맥락의 이해에 중점을 둔다(Segal, 2011; Adelman et al., 2016). 학생들은 인터넷, 서적 등의 조사와 관련 기관 문의를 통해 복지 정보 제공에 대한 노인과의 기관 간의 차이·격차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때, 노인들은 분명히 디지털 역량·접근성 수준이 열위에 있지만, 관련 기관이 소규모 예산의 효율적 활용, 인력 부족, 행정적 관행·편의성 등에 따라 복지 제도 정보를 인터넷과 책자로 안내한다는 맥락적 사

표 1. 노인 복지맵 봉사 프로젝트

봉사 학습 단계	사회적 공감 학습 요소	주요 활동
사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협업적 프로젝트 설계&gt; 연구자와 학생들이 함께 프로젝트의 목표와 과정, 일정 등을 설정한다.</li> <li>• &lt;전문가 특강 &amp; 연구자 교육&gt; 지리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전문가 특강(지리교육 전공의 대학 교수)에 참여하여 지리 지식을 심화·확장하고, 연구자 교육을 통해 대중이 제작한 지도의 가치와 사회적 파급력을 학습한다.</li> </ul>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출</li> <li>• 설명</li> <li>• 경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현장 조사&gt; 경로당, 공원, 사회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여러 노인과 접촉하고, 친밀한 대화를 통해 그들의 문화, 가치관, 능력 등을 이해한다(<b>노출</b>). 그리고 노인 복지 제도의 종류, 수혜 자격 및 신청 경로 등에 대한 실제 노인들의 인식 수준과 제약 요소, 요구 사항을 조사한다.</li> <li>• &lt;교실 조사&gt; 복지 제도의 수혜자인 노인과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관계자 간의 인식, 요구 등이 차이·격차를 보이는 이유를 사회적 맥락, 업무 관행 측면에서 탐구하고, 나아가 이러한 차이·격차가 노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한다(<b>설명</b>). 이후, 노인의 처지(문화, 가치관, 나이, 능력 등)에 자신을 위치시켜 그들의 삶을 상상한다(<b>경험</b>).</li> </ul>
계획·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노인 복지맵 제작&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맵 설계 방향 결정]: 복지 제도에 대한 노인의 실질적인 접근성 증진을 위해 조사 단계에서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분석·종합하여 복지맵의 설계 방향을 결정한다.</li> <li>- [복지맵 제작]: 구글맵스와 공공데이터의 조작·활용 방법 학습 → 노인 복지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지도의 공간 범위 설정, 범례 생성 → 지리적 시각화(구글맵스 지도 생성) → 일러스트레이터의 활용을 통한 노인 복지맵 보완·완성</li> <li>- [복지맵 검토]: 노인의 처지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복지맵을 재검토하고, 그 지도가 노인의 삶에 불러일으킬 이점을 예상한다(<b>경험</b>).</li> </ul> </li> <li>• &lt;봉사 실행 계획 수립&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를 진행할 구체적인 대상과 장소, 시간, 그리고 협력 기관에 관련된 계획을 설정한다.</li> <li>- 노인을 위한 봉사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 태도 등에 대한 사전 연습 및 숙지를 거친다.</li> </ul> </li> </ul>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적 실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봉사 활동&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대상 봉사]: 협력 기관 직원들과 함께 지역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복지맵을 전달하고, 노인들이 지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한다(<b>공감적 실천</b>). 세부적으로 노인들에게 지도를 보는 방법을 안내하고, 지도에 포함된 다양한 복지 제도의 수혜 자격, 신청 경로 등과 QR 코드(음성 지원) 활용 방법을 교육한다.</li> <li>- [기관 대상 봉사]: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에 복지맵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안내를 통해 지도가 행정적·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b>공감적 실천</b>).</li> </ul> </li> </ul>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적 성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학습 성찰&gt; 봉사 학습에 대한 반성적 평가 및 성찰을 위해 봉사 활동의 의미와 효과, 아쉬운 점 등을 고심하고, 노인에 대한 자신의 기존 인식·가치·태도를 반성한다. 또한, 자신과 노인의 차이를 인정하며, 노인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모색한다(<b>공감적 성찰</b>).</li> </ul>
성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적 실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성과 공유&gt; 봉사 학습의 성과와 복지맵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여 복지맵의 활용도를 높이고,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한다(<b>공감적 실천</b>).</li> </ul>

실을 파악하였다.<sup>7)</sup> 즉, 학생들은 복지 정보 수집에 대한 노인들의 어려움을 사회 구조적 맥락으로 이해(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Segal, 2018; 한동균, 2020). 이후 연구자와 학생들은 이상의 조사 내용을 고려하여 노인의 나이, 능력, 가치관, 사회적 제약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그들이 겪는 실제적인 삶에 공감하는 기회를 가졌다(Segal, 2011; Adelman et al., 2016).

계획·준비 단계는 노인 복지맵 제작과 봉사 활동의 수행 계획 수립을 진행하며, 봉사를 위한 지식·기술을 갖춘다(Wilczenski and Coomey, 2007). 가장 먼저, 조사 단계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를 토대로 복지맵의 기본적인 설계 방향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복지 제도를 관리하는 행정복지센터의 위치, '2025년 김해시 노인 복지 지원 안내서'에 제시된 기초연금제도, 노인 일자

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16개의 복지 제도에 대한 설명, 다양한 종류의 병원 위치를 지도에 표현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지도에는 전화문의에 의존하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기관의 명칭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도 표현하기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지도 제작을 위해 구글맵스의 조작 방법과 공공데이터의 활용 방법을 익히고, 지도에 표현할 가치 있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데이터와 병원 정보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데이터 수집·분석 과정에서 발견한 노인용품 제공 서비스 업체(의료 기기 등의 대여 서비스 제공)와 방문 서비스 업체(방문 요양, 주간간 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 위치와 연락처도 지도에 표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도에 표현할 공간 범위를 설정하고,<sup>8)</sup> 구글맵스와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자와 학생들이 협력적으로 노인 복지맵을 제작하였다(그림 1).

복지맵의 유용성 증진을 위해 학생들은 노인의 처지가 되어 자신들이 제작한 지도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플로터를 통해 지도를 대형으로 출력하였음에도 지도 정보가 노인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복지 제도 정보를 글자가 아닌 음성으로 소개하는 QR 코드를 생성하였으며,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고려하여 QR 코드와 이의 활용 절차를 지

도에 함께 포함하였다. 또한 복지맵이 노인들의 삶에 불리일지 이점을 예상 및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노인의 처지에서 복지맵을 검토하고, 해당 지도가 그들의 삶에 미칠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능해 보았다(Segal, 2011).

봉사 활동의 실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봉사의 대상·장소·시간을 결정하고, 봉사의 효과적 진행을 위한 협력 기관들을 탐색하였다. 더욱이 학생들이 봉사 수행 능력 및 태도, 의사소통 기술 등을 갖추지 못하면 활동의 질이 저하된다는 지적(Barber, 1992)이 존재하여, 활동 시나리오별 연습과 같은 사전 역량 교육을 진행하였다.

봉사 학습의 행동 단계는 사회적 공감과 책임감을 토대로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실제 봉사 활동을 실천하는 과정이다(Wilczenski and Coomey, 2007; Segal, 2011; Adelman et al., 2016; 한동균, 2020). 우선 학생들은 김해시 복지재단의 직원들과 함께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봉사와 지도 기준을 실천하였으며, 노인들이 복지맵을 통해 다양한 복지 제도의 종류, 자격 조건, 신청 방법을 이해하고 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그림 2-A). 이후, 학생들은 복지맵이 행정적·정책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도를 공유하고, 이것의 제작 취지 및 방법, 그리고 노인들의 실제 반응 등을 설명하는 기회도 마련하였다(그림 2-B).



그림 1. 노인 복지맵(김해시 장유동 사례)



그림 2 학생들의 봉사 학습 장면

\* A는 노인 대상의 봉사, B는 관련 기관 대상의 봉사, 그리고 C는 성과 발표회의 모습이다.

성찰 단계에서는 봉사 활동에 전반에 대한 반성적 평가 또는 성찰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봉사 활동이 갖는 의미와 효과, 아쉬웠던 점을 고심해 보고, 자신이 노인에게 가졌던 기존 인식·가치·태도의 문제점을 발표하였다. 일부 학생은 노인 빈곤이 개인의 노력과 능력 부족, 신체적 쇠약, 즉 개인의 책임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던 자신의 과오를 밝혔고, 노인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소감을 제시하였다(Segal, 2011).

봉사 학습의 마지막은 성과 공유 단계로, 봉사 학습의 성과와 복지맵 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여 복지맵의 활용도를 높이고,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대중적 관심을 이끄는 과정이다(Wilzenski and Coomey, 2007). 학생들은 연구자와 협업하여 학교 홈페이지 게시, 관공서 대상의 공문 발송, 그리고 지역의 주요 인사들을 초빙한 발표회(그림 2-C)를 진행하였다. 덧붙여 발표회에 참석한 한 시의원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체제 전환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를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과정은 시민적 책임, 공공적 의사소통,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한 역량을 강화하고(Wade and Yarbrough, 2007),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사회적 실천의 또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다(Segal, 2011; 한동균, 2020).

## IV. 연구 결과

### 1. 정량적 분석 결과

#### 1) 사전 동질성 검증

노인 복지맵 봉사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실험집단(N=32)과 통제집단(N=38)의 사전검사 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두 집단의 동질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영역(평균차=0.01, *t*=0.100, *p*=0.921), 그리고 그 하위의 개인적 영역(평균차=-0.1, *t*=-0.123, *p*=0.903)과 사회적 영역(평균차=0.3, *t*=0.240, *p*=0.811)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두 집단이 유사한 공감 수준을 지닌 동질적 집단이라는 점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2) 사회적 공감 능력 변화

봉사 프로젝트가 학생들의 사회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 차이에 대한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Levene의 검정 결과, 유의확률(*p*)이 0.255로 나타나 ANCOVA 수행을 위한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한 ANCOVA 결과, 표 2와 같이 집단 간 사후검사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표 2 사회적 공감(전체) 점수에 대한 ANCOVA 결과

분석 요인	집단	M(SD)	Adj. M(SE)	F	p	$\eta_p^2$
사회적 공감(전체)	실험(N=32)	4.18(0.42)	4.18(0.07)	14.80	<0.001	0.18
	통제(N=38)	3.84(0.33)	3.84(0.06)			

\* Adj. M은 사전검사 점수의 평균(3.83)을 공변량으로 통제하여 산출된 결과임.

차이를 보였다( $F=14.80, p<0.001$ ). 실험집단의 수정된 평균값은 4.18( $SE=0.07$ )로 통제집단의 3.84보다 0.34 높게 나타났으며, 효과 크기( $\eta_p^2$ )도 0.18로 도출돼, 봉사 프로젝트의 교육적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수준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봉사 프로젝트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많은 노인과의 면담 및 요구 조사를 진행하고, 복지 제도의 운영·정보 제공 등에 대한 노인과 행정 기관 간의 차이·격차와 이를 둘러싼 사회 구조적 맥락을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복지맵을 제작·활용한 노인과 기관 대상의 봉사를 수행하는 학습 경험을 통해 사회적 공감 능력을 유의하게 향상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하위 영역인 개인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을 분석 요인으로 설정한 MANCOVA 결과는 표 3과 같다. 오차 분산의 등분산성( $p>0.05$ ) 및 집단 간 공분산 행렬의 동질성( $p=0.436$ ) 가정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실험 처치 유무에 따른 두 집단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p<0.01$ ).

다변량의 유의성 확인에 따른 후속 일변량 ANCOVA 결과, 실험집단은 개인적 영역( $F=6.76, p=0.012, \eta_p^2=0.09$ )과 사회적 영역( $F=10.51, p=0.002, \eta_p^2=0.14$ ) 모두에서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표 3). 특히, 사회적 영역의 수치가 개인적 영역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통해, 봉사 프로젝트가 노인의 어려움을 복지 정보 접근성과 전달 체계의 한계와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도록 이끄는 데 유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공익적 지리정보를 생산·공유하는 실천적 경험이 사회문제를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민적 책임 의식과 행동으로 확장되는 학습 조건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 2. 정성적 분석 결과

실험집단 학생들의 반성적 보고서와 심층 면담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1) 공감의 개념 이해와 사회적 확장, 2) 공익적 지리정보의 가치 인식, 3) 기존 제도에 대한 비판적 관점 형성, 4) 사회적 책임과 시민적 효능감의 경험이라는 네 가지 주요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 1) 공감의 개념 이해와 사회적 확장

학습 초기, 대부분의 학생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정서적 반응만이 공감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었으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공감이 정서적 요소와 더불어 대상의 관점과 생각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의사소통적·행동적 요소를 포괄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즉 학생들에게 공감을 감정적 반응 자체에만 중점을 둔 동정과 구별·분리하고(Rogers, 1980; Wispé, 1986), 좀 더 복합적인 능력으로 이해하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박성희, 2004; 허순향·남승규, 2019; Guidi and Traversa, 2021).

“누군가가 울고, 웃고, 화내는 감정을 함께하는 게 공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봉사 수업에 참가함으로써 공감은 감정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과정까지 의미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S-14)

“공감은 친구나 다른 사람이 느끼는 기쁨, 슬픔처럼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것이라고 알았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상황을 알아차리고 또 함께 대화하고 도와드리는 행동 모두가 공감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S-32)

표 3. 하위 영역별 점수에 대한 MANCOVA 및 후속 일변량 ANCOVA 결과

분석 요인	집단	M(SD)	Adj. M(SE)	F	p	$\eta_p^2$
다변량 검정(Wilks' $\Lambda=0.82$ )	-	-	-	7.32	0.001	0.18
개인적 영역	실험(N=32)	4.16(0.52)	4.17(0.08)	6.76	0.012	0.09
	통제(N=38)	3.88(0.41)	3.88(0.08)			
사회적 영역	실험(N=32)	4.20(0.53)	4.20(0.09)	10.51	0.002	0.14
	통제(N=38)	3.81(0.47)	3.81(0.08)			

\* 개인적·사회적 영역의 Adj. M은 각 영역의 사전검사 평균(각각 3.87, 3.80)을 공변량으로 통제하여 산출된 결과임.

또한 학생들은 복지 제도에 의존하는 노인들의 처지를 실제로 듣고, 제도를 안내·운영하는 공공 기관의 재정 여건과 업무 관행 등을 분석하였으며, 복지 제도 정보 안내를 둘러싼 노인과 기관 관계자 간의 인식 격차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개인적 공감을 사회적 공감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로당에서 공공 근로 자리는 넉넉하지 않고 자식들도 힘들게 생활하는 모습 때문에 10만원 정도로 한 달을 보내신다는 할머니의 말씀은 큰 충격을 일으켰다. …중략…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고, 공무원 (편의) 때문에 디지털 약자인 노인에게 복지 제도를 인터넷으로 안내하고, 복지 대상과 복지 안내 예산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중략… 노인들을 100% 공감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어려움과 마음을 이해하고 노인 제도 상황, 공공 기관 특성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S-5)

이상의 진술은 학생들이 노인의 감정, 생활 실상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처한 사회 구조적 맥락까지 이해·해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의 형성과 심화를 시사한다(Segal, 2011; Hylton, 2018; 한동균, 2024).

## 2) 공익적 지리정보의 가치 인식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복지맵이라는 공익적 지리정보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초기 단계에서 지도 제작을 단순한 위치 표시와 같은 과업으로 판단하였지만, 점차 정보의 선택과 표현 방식 등에 따라 타인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특히 노인의 요구와 삶의 맥락을 반영하여 복지맵을 구성하고, 이를 공공의 장에서 활용하는 봉사 경험을 통해 지리정보가 사회의 요구에 응답하는 공공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측면을 대표하는 학생의 진술문이다.

“처음에는 복지센터 같은 것을 지도에 찍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노인분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떤 정보를 넣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의 지도인데,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지도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략… 만든 지도를 노인분들이 실제로 쓰시는 모습을 본 것과 복지센터, 노

인복지관 직원분들이 보이시는 반응을 보고 지도가누군가한테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삶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도가 공공적인 힘을 갖는 도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S-2)

이처럼 복지맵의 제작·활용 경험은 학생들에게 지리정보가 노인들의 삶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실천이자 사회적 책임 수행의 매개체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 3) 기존 제도에 대한 비판적 관점 형성

학생들은 기존의 복지 제도가 노인의 삶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하였지만, 노인과의 실제 만남과 조사 과정을 통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이해하였다. 즉 다수의 복지 제도가 존재함에도, 엄격한 자격 기준, 복잡한 절차, 정보 제공 방식의 제약에 따라 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노인들이 존재하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노인 복지 제도가 너무 다양해서 처음에는 노인들에게만 특혜를 준다고 생각했지만, 소득 제한, 나이 제한처럼 많은 제한이 있어서 제도의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고, 저희가 뵈었던 노인 사례처럼 애매하게 복지를 못 받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중략… 노인 입장에서 제도 신청 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할 수 있어요. …중략… 지금 사회 제도는 (노인) 복지 제도 안내를 놓치는 허점을 갖고 있어요.”(S-20)

그리고 한 학생은 복지 제도의 존재와 이에 대한 접근성을 분리하고, 제도의 존재만으로 사회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는 노인이 실제로 복지 제도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을 통해 사회 정의의 기준을 재구성하려는 비판적 사고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저는 아무리 복지 제도가 많아도 (노인들이 제도에) 잘 닿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중략…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인데, 노인들이 복지 제도를 쉽게 누리야 노인 복지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도는 많아도 (제도) 전달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복지가 좋은 나라, 노인을 위한 정당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S-9)

이러한 내용은 학생들이 기존 복지 제도의 설계와 전달 방식에 존재하는 제도적 한계와 모순을 포착하고(Slater, 1992; Diemer and Blustein, 2006), 이를 통해 기존 제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Freire, 1973).

#### 4) 사회적 책임과 시민적 효능감의 경험

학생들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토대로, 자신들을 복지 정보 전달의 제약을 완화해야 할 책임의 주체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Segal, 2011). 즉 노인과의 만남, 지도 제작, 제도의 한계 분석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회적 공감을 노인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 의식으로 전환하였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지도를 보시니까, 저희가 만드는 지도가 도움이 안 되면 그분들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되고 자주 활용하실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중략... 일종의 압박감, 책임감, 의무 같은 것을 강하게 느꼈어요.”(S-25)

“처음에는 ‘도와드리고 싶다.’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건 우리가 안 하면 계속 그대로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지맵을 만들고, 봉사 활동을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처럼 느껴졌어요.”(S-11)

그리고 일부 학생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시민적 효능감을 체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저희가 제작한 지도를 노인들이 실제로 쓰시고, 복지관과 동사무소 직원들께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칭찬해주셨던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지도가 정책, 행정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뜻깊었습니다. ...중략...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치로운 행동을 했고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그 역할을 올바르게 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S-5)

이와 같이 봉사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개입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

는 효능감을 제공하였다. 이는 Segal(2011; 2018)이 강조한 사회적 공감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사회적 책임과 실천을 교육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노인 복지맵 제작·활용에 중점을 둔 지리교육적 봉사 프로젝트를 설계·개발하고, 해당 프로젝트가 학생들의 사회적 공감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프로젝트는 노인의 삶을 개인 차원과 사회 구조적 차원의 교차점에서 이해·해석하고, 연구자와 학생들이 협업적으로 공익적 지리정보(노인 복지맵)를 생산·공유하는 시민적 실천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조사, 계획·준비, 행동, 성찰, 성과 공유의 봉사 학습 과정을 적용하였고, 학생들이 노인과의 직접적인 만남, 복지맵 제작 및 이를 활용한 봉사 활동, 지역사회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프로젝트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량적 분석 결과, 복지맵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사회적 공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하위 영역 중 사회적 영역이 개인적 영역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노인의 삶을 개인적 차원으로 공감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복지 정보 접근성과 전달 체계의 제약, 디지털 격차 등 사회 구조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공익적 지리정보를 매개로 이를 개선하려는 시민적 책임 의식과 행동을 통해 공감을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성적 분석 결과, 학생들은 공감 개념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고, 공익적 지리정보의 가치와 사회적·제도적 한계를 이해하였으며, 사회적 책임과 시민적 효능감을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복지맵 봉사 프로젝트가 사회적 공감 교육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데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운영과 학생 반응 관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 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생들이 봉사의 대상인 노인에게 깊은 사회적 공감을 보였던 경향은 본 연구의 교육적 성과이지만, 동시에 공감의 내재적 한계가 부분적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Hoffman(2000)은 공감의 내재적 한계로 정서적 과잉과 친숙함의 편향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일부 학생은 프

로젝트 참여 과정에서 공감이 자신과 심리적·물리적으로 가까운 대상, 혹은 현재 접촉하고 있는 대상에게 집중되는 친숙함의 편향을 보였다. 예컨대 “가장 도움이 필요한 대상은 노인이다. 노인 복지 제도를 더 늘리고, 복지 제도 안내에 비용과 인력을 크게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S-17).”,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대대적으로 높이면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진다고 생각해요 (S-29).”와 같이 일부 학생은 친숙함의 편향에 따라 다른 대상(또는 집단)의 존재 및 구조적 어려움을 간과한 상태로 노인만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확대가 곧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인식하는 과도한 일반화를 보였다. 따라서 사회적 공감 교육은 공감의 대상을 특정 집단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집단이 처한 사회 구조적 조건을 비교·분석하고 공감의 내재적 한계를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 균형적 시각으로 사회 정의를 이해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Decety and Yoder, 2016; 한동균, 2018).

둘째, 본 연구는 사회적 공감 교육의 지리교육적 실천을 위해 지리정보기술과 노인 복지맵의 활용에 중점을 두었지만, 향후 사회적 공감 교육에서는 지리교육 고유의 ‘공간’ 개념을 심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나 중립적 토대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상호 구성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산물이다(Lefebvre, 1991).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은 특정 집단의 반복적인 사회적 실천과 권력관계를 반영하고, 그에 따라 공간 자원 분포, 이동 가능성, 접근성의 격차 등 다양한 공간적 불평등이 발생한다. 또한 공간적 불평등은 사회적 약자의 일상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Soja, 2010; 손민석, 2025). 따라서 사회적 공감 교육은 공간적 불평등이나 공간적 차별을 핵심 개념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가 처한 사회 구조적 공간 맥락까지 공감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젝트의 교육적 효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본 연구에는 참여 인원이 제한적이고, 높은 관심이나 동기를 지닌 학생들이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설문 결과가 실제 학생들의 사회적 공감 내면화 정도를 온전하게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공감 척도는 교육 현장 적합도는 높으나, 기존 사회적 공감 척도들과의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동균, 2024). 둘째, 본 연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는 지리정보기술과 이의 활용에 기반한 노인 복지맵 제작·공유에 중점을 두어 지리교육의 기술적 측면만을 부각하였다는 비판에 취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공익적 지리정보의 생산과 이를 활용한 지리교육적 봉사 학습, 그리고 사회적 공감 교육을 접목함으로써, 사회적 공감 교육의 새로운 실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다양한 후속 연구의 수행을 통해 지리교육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공감 교육이 더욱 심화·확장되기를 기대한다.

## 註

- 1)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공익적 지리정보(복지맵)은 Web 2.0 환경에서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와 데이터 공유를 강조하는 참여형 지리정보(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 및 크라우드 맵핑(Crowd Mapping)의 범주에 해당한다. 특히 학생들이 지리정보의 공급자로서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 제도와 관련한 수요를 직접 조사하고 시각화하는 사용자 중심의 참여형 복지 GIS 모델을 실천한 사례로도 볼 수 있다.
- 2) 일상에서 공감은 동정(sympathy)과 유사하게 타인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이해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상태로 타인의 정서와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인지적·정서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동정과 구분된다(Wispé, 1986). 공감은 타인의 경험을 마치 자신의 것과 같이 이해하되 실제로 동일시하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두며(Rogers, 1980), 감정의 단순한 공유나 전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면 동정은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 연민, 애도와 같은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반응이 타인의 실제 감정이나 관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반드시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주관적인 정서 상태로 이해된다(Wispé, 1986; 신경일, 1994). 즉 공감은 타인의 감정·생각·의도 등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포함하지만, 동정은 감정적 반응 자체에 중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Wispé, 1986; 이종형, 2008; 한동균, 2020).
- 3)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기술을 지리정보체계, 위치확인시스템 등에 더해 구글맵스, 구글어스, 각종

- 지리정보 기반 애플리케이션 등 Web 2.0 기술과 결합한 기술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한다(손민석·이진희, 2024).
- 4) 한동균(2024)이 제작한 사회적 공감 척도 중, 사회적 영역의 6번 문항과 22번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역으로 코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 5) 구체적인 Cronbach  $\alpha$  값은,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 0.921(개인적 영역 0.880, 사회적 영역 0.887), 통제집단 0.870(개인 0.858, 사회 0.843),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 0.935(개인 0.899, 사회 0.959), 통제집단 0.806(개인 0.746, 사회 0.841)으로 나타났다.
  - 6) 김해시청은 2025년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종합한 ‘노인 복지 지원 안내서(리플렛)’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여러 행정복지센터에서 책자로 배부하고 있다(출처: <https://www.gimhae.go.kr/00954/01023/01188.web?amode=view&gcode=1095&idx=2557972>).
  - 7) 복지 지도 제작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노인과 관련 기관 종사자 간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노인들은 복지 지도 제작에 크게 공감하였지만, 관련 기관의 종사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의 ‘복지 지도’를 통해 다양한 복지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위치 정보가 제공되므로 노인 복지맵 제작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견지를 취하였다.
  - 8) 지도 제작 중 관공서, 노인 복지 및 의료 시설 등의 공간 자원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사회의 일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공간 자원 밀집도가 높은 지역들만 지도에 담기로 결정하였지만, 실제 프로젝트 과정에서 학생들과 연구자는 지역사회의 공간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공간 자원에 대한 노인들의 공간적 접근성·권리를 훼손·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토의를 거쳤다(손민석, 2025).

## 참고문헌

- 강유진·강효진, 2005,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의 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28, 255-294.
- 강은나·김혜수·정찬우·김세진·이선희·주보혜·황남희·김경래·이혜정·최경덕, 2023,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2023-84)」,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민성·이창호, 2015, “지리공간기술 기반 봉사학습 프로젝트: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의 지역사회 참여” 한국지도학회지, 15(3), 63-77.
- 김신영, 2006,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결정요인연구” 노인복지연구, 32, 99-117.
- 김안나, 2007,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32, 227-256.
- 박가나, 2020, “사회과 교육과정 속 공감 관련 내용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3), 787-813.
- 박성희, 2004, 「공감학: 어제와 오늘」, 서울: 학지사.
- 서영진, 2021, “사회적 공감 능력 신장을 위한 대학 교양 수업 사례와 효과 분석” 교양교육실천연구, 5(1), 25-46.
- 손민석, 2025, “통합사회에서의 공간 정의 수업과 교육적 효과 -지역사회 공간 정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3(3), 35-53.
- 손민석·이진희, 2024, “공간적 시민성 교육에 대한 교사·학습자 요구 분석 -교수·학습모형 개발을 위한 현장 조사 및 교육적 방향성 설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2(3), 99-118.
- 신경일, 1994,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 및 표현적 요소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9(1), 1-37.
- 이종임·박진우·이선민, 2021, “청년 세대의 분노와 혐오 표현의 탄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혐오-언어’ 표현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2(2), 5-37.
- 이종형, 2008, “공감이론의 도덕교육적 함의에 관한 연구: 마틴 호프만(Martin Hoffman)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보애, 2010, “지리적 탐구방법과 통합된 봉사학습: 지역 사회중심 환경교육의 실행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3), 323-337.
- 최용규·이서영, 2015, “사회과교육에서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방안” 사회과학교육연구, 17, 31-52.
- 한동균, 2018, “글로벌 정의교육을 위한 공감의 사회과 지리수업 모델 개발 및 적용 방안 모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6(1), 37-58.
- 한동균, 2020, “사회적 공감 능력 신장을 위한 사회과교육 방안 모색” 사회과교육, 59(2), 149-168.

- 한동균, 2024, “중·고등학생용 사회적 공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사회과교육*, 63(2), 141-164.
- 한성범, 2023, “사회적 공감능력 함양을 위한 초등 사회과 수업의 구안 및 적용,” *사회과수업연구*, 11(2), 97-115.
- 허순향·남승규, 2019, “공감의 구성요소와 심리적 기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9(3), 939-947.
- Adelman, M., Rosenberg, K.E., and Hobart, M., 2016, Simulations and social empathy: Domestic violence education in the new millennium, *Violence Against Women*, 22(12), 1451-462.
- Aramburuzabala, P. and Cerrillo, R., 2023, Service-learning as an approach to educat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ility*, 15(14), 11231.
- Barber, B., 1992, *An Aristocracy of Everyone: The Politics of Education and the Future of America*, New York, NY: Ballantine Books.
- Barrett-Lennard, G.T., 1981, The empathy cycle: Refinement of a nuclear concep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2), 91-100.
- Beer, D.G., 2003, Sympathy and empathy: Women writers and a new idea, *The Korean Association for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1(2), 1-19.
- Creswell, J.W. and Plano Clark, V.L., 2018,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3rd ed)*, Los Angeles, CA: SAGE.
- Davis, M.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26.
- De Vaus, D., 2002, *Surveys in Social Research (5th ed)*, London: Routledge.
- Decety, J. and Yoder, K.J., 2016, Empathy and motivation for justice: Cognitive empathy and concern, but not emotional empathy, predict sensitivity to injustice for others, *Social Neuroscience*, 11(1), 1-14.
- Deeley, S.J., 2010, Service-learning: Thinking outside the box, *Active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11(1), 4353.
- Dewey, J., 1990, *School and Socie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iemer, M.A. and Blustein, D.L., 2006, Critical consciousness and career development among urban yout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 220-32.
- Eisenberg, N. and Miller, P.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91-119.
- Farber, K., 2017, *Real and Relevant: A Guide for Service and Project-Based Learning*, Washington D.C.: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Ferrer-Juliá, M., Pereira, I., Cruz, J.A., and García-Meléndez, E., 2025, A service-learning project to acquire GIS skills and knowledge: A case study for environmental undergraduate students, *Sustainability*, 17, 2276.
- Freire, P., 1973, *Education for Critical Consciousness*, New York: Continuum.
- Grabbatin, B. and Fickey, A., 2012, Service-learning: Critical traditions and geographic pedagogy, *Journal of Geography*, 111(6), 254-60.
- Guidi, C. and Traversa, C., 2021, Empathy in patient care: From ‘Clinical Empathy’ to ‘Empathic Concern’, *Medicine, Health Care and Philosophy*, 24, 573-85.
- Hoffman, M.L., 1981, Is altruism part of human n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1), 121-37.
- Hoffman, M.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ylton, M.E., 2018, The role of civic literacy and social empathy on rates of civic engagem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Outreach and Engagement*, 22(1), 87-106.
- Jacoby, B., 2015, *Service-Learning Essentials: Questions, Answers, and Lessons Learned*, San Francisco, CA: John Wiley & Sons(이현우·김효선·이원석·이정민·장덕호·장석진 역, 2018, 「서비스-러닝의 본질: 질문, 답, 그리고 깨달음」, 서울: 피와이메이트).
- Kindon, S., Pain, R., and Kesby, M., 2007,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Origins, approaches and methods, in Kindon, S., Pain, R., and Kesby, M., eds.,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Approaches and Methods: Connecting People, Participation and Place*, New York: Routledge, 9-18.
- Kraft, R.J., 1996, Service learning: An introduction to its

- theory, practice, and effects, *Education and Urban Society*, 28(2), 131-59.
- Krippendorff, K. 2004.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Krznicaric R., 2014, *Empathy : A Handbook for Revolution*, New York: Tarcher Perigee(김병화 역, 2018, 「진심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 공감하는 능력」, 서울: 더퀘스트).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lackwell (양영란 역, 2011,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
- MacEachren, A.M and Kraak, M.J., 2001, Research challenges in geovisualization, *Cartography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28(1), 3-12.
- Morgan, J., 2000, Geography teaching for a sustainable society, in Kent, A., ed., *Reflective Practice in Geography Teaching*, London: Paul Chapman Publishing, 168-78.
- Nussbaum, M.C., 2010, *Not for Profit: Why Democracy Needs the Humani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gers, C.R., 1980, *A Way of Being*, Boston: Houghton Mifflin.
- Sandel, M.J., 2020,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London: Penguin UK.
- Schensul, J.J. and Berg, M., 2004, 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A transformative approach to service-learning,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 Learning*, 10(3), 76-88.
- Segal, E.A., 2011, Social empathy: A model built on empathy contextual understanding and social responsibility that promotes social justice,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7(3), 266-77.
- Segal, E.A., 2018, *Social Empathy: The Art of Understanding Othe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안종희 역, 2019, 「사회적 공감」, 서울: 생각이음).
- Segal, E.A. and Wagaman, M.A., 2017, Social empathy as a framework for teaching social justice,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53(2), 201-11.
- Slater, F., 1992, To travel with a different view, in Naish, M., ed., *Geography and Education*, Institute of Education, London: University of London, 97-113.
- Soja, E.W., 2010, *Seeking Spatial Justi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tiglitz, J.E., 2012,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Wade, R. and Yarbrough, D., 2007, Service-learning in the social studies: Civic outcomes of the 3rd-12th grade civic connections program, *Theory &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35(3), 366-92.
- Watts, R.J., Diemer, M.A., and Voight, A.M., 2011, Critical consciousnes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11(134), 43-57.
- Wessell, J., 2024, The kellogg tree project: Using service learning and field research with geospatial technologies, *Journal of Geography*, 123(5), 141-46.
- Wilczenski, F.L. and Coomey, S.M., 2007, *A Practical Guide to Service Learning: Strategies for Positive Development in Schools*, New York, NY: Springer.
- Wispe, L., 1986, The distinction between sympathy and empathy: To call forth a concept, a word is need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2), 314-21.
- Yoo, C. and Jang, W., 2019, Social empathy for society beyond the social work profession: A contextual understanding of poverty and attitudes towards government interventions, *Sociétés*, 145(3), 25-36.
- National Youth Leadership Council 홈페이지, 2025년 8월 5일자, "Service-Learning", <https://nylc.org/service-learning>
- 교신 : 손민석,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 (이메일: syc1616@jangyu-h.gne.go.kr)
- Correspondence: Minsuk Son, 50980,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Institute for Unified Korea, Pusan National University (Email: syc1616@jangyu-h.gne.go.kr)

투고접수일: 2026년 2월 9일

심사완료일: 2026년 3월 10일

게재확정일: 2026년 3월 17일

[부록] 사회적 공감 척도

영역	문항
개인적 공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li> <li>2.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li> <li>3. 나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다.</li> <li>4. 나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li> <li>5. 나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한다.</li> <li>6.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의견을 고려한다.</li> <li>7. 나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나도 느낄 수 있다.</li> <li>8. 나는 어떤 문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기 위해 노력한다.</li> <li>9. 나는 다른 사람과 나의 감정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li> <li>10. 나는 내가 현재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li> <li>11. 나는 나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구분할 수 있다.</li> <li>12. 나는 나보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는다.</li> <li>13.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다.</li> <li>14.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li> <li>15.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에게 표정이나 몸짓으로 반응한다.</li> <li>16. 나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li> <li>17. 나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동을 잘 받는 편이다.</li> </ol>
사회적 공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는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을 지지한다.</li> <li>2. 나는 차별에 직면할 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선다.</li> <li>3. 모든 시민은 자신들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li> <li>4. 나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특정인의 성공이나 실패에 유리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한다.</li> <li>5.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정부 역할 중의 하나이다.</li> <li>6. 나는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돕는 것이 불편하다.</li> <li>7. 나는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믿는다.</li> <li>8. 나는 정부가 차별받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li> <li>9. 나는 가난한 어른들은 사회적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li> <li>10. 나는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여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li> <li>11. 나는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li> <li>12. 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 속 편견과 차별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li> <li>13.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여해야 한다.</li> <li>14. 정부는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li> <li>15.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구조적 불평등과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li> <li>16. 정부는 소득재분배를 통해 빈부격차를 감소시켜야 한다.</li> <li>17. 우리는 지역과 사회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li> <li>18. 노숙인이 거주지가 없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li> <li>19. 사회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li> <li>20. 사회 구성원들은 더욱 나은 세상을 위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li> <li>21. 우리는 모든 사람이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할 책임이 있다.</li> <li>22. 나는 내 행동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li> <li>23. 사회 구성원들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li> </ol>